

293-6

야스페스와 하이데거 모두 기술이 수단이라는 사실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둘 다 기술이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은 인정을 하고, 특히 야스페스는 기술의 수단적 속성을 강조하기까지 하지만, 그래도 기술의 수단적 속성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는 둘 다 동의할 것입니다. 야스페스의 입장에서도 만약 기술이 수단이라는 사실에 너무 매몰된다면, 기술의 활용 맥락에 대한 가치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293-7

요나스는 전통 윤리가 예견 가능한 삶의 전망에 대한 책임 '만'을 포함하고 있으며, 따라서 새로운 책임 윤리는 예측 불가능한 장기적 전망에 대한 책임 '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해당 선지의 경우 전통 윤리가 예견 가능한 전망에 대한 책임도 포함하고 있지 않는다는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26 수능특강 97쪽 <자료 플러스>

해설 中 : 요나스는 기존의 전통적인 윤리적 세계가 동시 대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세계의 미래에 대한 전망은 예견될 수 있는 삶의 기간으로 제한되어 있다고 지적하였다.

293-8

요나스는 인간 실존 그 자체에 대한 도덕적 의무를 희망보다는 두려움에서, 그리고 선보다는 악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해당 선지의 경우 '악이 아닌'이라는 말이 잘못되었습니다.

293-10

요나스에 따르면 책임에 대한 명령은 조건부 명령이 아니라 무조건적 명령, 즉 정언 명령으로 제시됩니다. 참고로 요나스는 칸트의 정언 명령을 계승하였습니다. 다만 요나스는 칸트와 달리 정언 명령을 생태학에 입각시킨 '생태학적 정언 명령'을 제시하며, 행위의 결과를 고려하지 않았던 칸트와 달리 본인의 생태학적 정

언 명령은 '인류의 존속'이라는 결과를 고려하는 정언 명령임을 분명히 합니다.

294-2

요나스에 따르면 책임질 수 있다는 사실은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는 당위(의무)를 필연적으로 낳습니다. 즉 어떤 존재가 책임질 수 있다면, 그 존재는 무조건 책임져야 합니다. 예컨대, 현세대는 자연과 미래 세대에 대해 책임질 수 있으므로, 현세대는 자연과 미래 세대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책임져야 합니다.

294-4

베이컨은 인간이 자연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인간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26 수능특강 98쪽 1번 문항

- ④ 베이컨 : 자연의 일부분인 인간은 자연과 조화를 추구해야 한다. (X)

294-5

베이컨에 따르면 과학의 목적은 인간의 행복한 삶 실현, 그리고 인류의 복지 증진에 있습니다.

294-6

요나스는 과학 기술의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반면 베이컨은 과학 기술 낙관주의자로, 과학 기술은 언제나 긍정적인 영향만을 줄 뿐 과학 기술의 부정적인 결과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26 수능특강 101쪽 3번 문항

- ④ 베이컨 : 과학 기술의 긍정적 영향보다 부정적 영향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X)

26 수능특강 97쪽 <기술 플러스>

해설 中 : 요나스가 주장하는 공포의 발견술이란 인간 실존 그 자체에 대한 의무를 선에서 찾기보다 불행한 예언

을 적용함으로써 인간이 앞으로 처하게 될 운명을 진단하고 그 예방책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294-7

베이컨은 자연이 실험과 관찰을 비롯한 경험적 연구의 대상이라고 봅니다. 해당 선지의 경우 '경험적 연구가 아닌'이라는 말이 잘못되었습니다.

294-8

야스페스뿐만 아니라 하이데거 역시 기술이 인간의 목적을 위한 수단(도구)이라는 사실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26 수능완성 정답과 해설 41쪽 8번 문항

③ 하이데거는 과학 기술이 인간의 목적 실현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았다. 다만 하이데거는 과학 기술을 단순한 수단으로만 바라보는 견해는 옳지 않다고 보았다.

25 6월 모의평가 5번 문항

ㄹ. 하이데거와 야스페스 : 기술은 인간의 목적을 위한 수단임을 부인할 수 없다. (O)

295-2

야스페스와 하이데거 모두 기술의 활용에 수반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반성적 검토, 즉 기술의 활용 맥락에 대한 윤리적 가치 판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26 수능특강 정답과 해설 32쪽 7번 문항

ㄴ. 야스페스와 하이데거는 모두 기술의 활용에 따라 수반되는 문제점에 대한 반성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22 6월 모의평가 15번 문항

ㄹ. 야스페스와 하이데거 : 기술의 활용 방향에 대한 윤리적 성찰이 필요하다. (O)

295-5

요나스는 현세대가 인간에 대한 의무와 자연에 대한 의무를 모두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인간에 대한 의무보다 자연에 대한 의무를 중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26 수능특강 103쪽 8번 문항

ㄱ. 요나스 : 인간에 대한 의무보다 자연에 대한 의무를 중시해야 하는가? (X)

295-1

야스페스와 달리 하이데거는 기술 그 자체가 가치와 무관한 사실의 영역에 속한다고 보지 않으며, 오히려 기술에 대한 가치 중립적 고찰은 인간에 대한 기술의 지배를 더욱 심화시킨다고 주장합니다.

26 수능특강 95쪽 <자료 플러스>

해설 : 야스페스에 따르면 기술은 인간 사회와 무관하게 그 자체의 발전 논리를 가지고 있으며, 기술 그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수단일 뿐이다. 인간의 목적 설정에 따라 긍정적인 효과 혹은 부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 반면에 하이데거는 기술이 단순한 가치 중립적 도구가 아니며, 감추어져 있는 존재의 모습을 드러내 주는 수단이라고 파악하였다. 그는 기술을 가치 중립적 도구로만 보게 될 경우 인간이 기술에 종속당할 것이라고 보았다.

295-7

요나스는 과학자가 연구를 수행할 때 사회적(외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서는 안 되며, 과학자는 자신의 연구가 미래에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296-4

요나스는 현세대가 행위의 결과에 대한 사후적 책임, 그리고 행위가 행해지기 전에 자신의 행위로부터 예견될 수 있는 사전적 책임 모두 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해당 선지의 경우 '사후적 책임이 아니라'라는 말이 잘못되었습니다.

26 수능특강 정답과 해설 31쪽 7번 문항

⑤ 요나스는 행위의 결과에 대한 사후적 책임뿐만 아니라 자신의 행위로부터 예견될 수 있는 사전적 책임도 중시하였다.

296-5

베이컨과 요나스 모두 과학 기술이 자연에 대한 인간의 영향력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베이컨은 자연에 대해 인간의 영향력을 증대시키고 결과적으로 인간이 자연을 정복하게 되는 것은 언제나 인류에게 긍정적인 영향만을 준다고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반면, 요나스는 인간이 자연에 대해 더 큰 권력을 가지게 되는 것에 대해서 현세대는 과학 기술의 발달이 자연과 인류의 존속 가능성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296-8

베이컨에 따르면 자연에 대한 인간의 지배권은, 물론 욕망의 영향도 받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인간의 지식과 기술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컨은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는 인간이 자연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만큼 자연에 대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연에 대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만큼 인간은 자연을 지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선지의 경우 ‘기술이 아니라’라는 말이 잘못되었습니다.

297-1

요나스는 과학 기술의 부정적인 결과(악), 그리고 그에 대한 인간 감정 사이의 대립 사이에서 촉발되는 가치, 즉 두려움과 공포의 감정에서 인간이 져야 하는 책임을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스가 제시하는 ‘공포의 발견술’입니다.

26 수능완성 63쪽 〈자료와 친해지기〉

요나스 자료 中 : 이 경악의 대상은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나타나며, 그것은 지식에 선행하는 감정의 반향을 통해 이 대립으로 촉발되는 가치를 볼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친다.

297-5

하이데거는 기술이 본질적으로 은폐되어 존재하는 사물을 탈은폐시키는 수단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하이데거는 기술이 그 자체로 가치 중립적 영역에 속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해당 선지의 경우 ‘가치 중립적 수단일 뿐’이라는 말이 잘못되었습니다.

26 수능완성 64쪽 2번 문항

ㄱ. 하이데거 : 기술은 본질적으로 은폐되어 존재하는 사물을 탈은폐시키는 가치 중립적 수단일 뿐이다. (X)

297-7

하이데거와 야스페스 모두 기술을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 기술의 활용 맥락에 대한 윤리적 성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295-2 해설 참고

298-4

요나스는 기술의 진보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는 희망을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술의 진보가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를 고려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요나스의 주장입니다.

26 수능완성 68쪽 9번 문항

⑤ 요나스 : 기술의 진보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는 희망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 공포의 발견술이 필요하다. (X)

298-5, 298-6

하이데거는 현대 기술의 도발적 요청으로, 즉 현대 기술의 ‘닦달’로 인해 인간은 단순히 하나의 자원 혹은 부품에 불과한 존재로, 그리고 자연은 자연 자체가 아니라 하나의 에너지 저장고 혹은 창고로 전락하게 되었다고 봅니다.

26 수능완성 정답과 해설 21쪽 2번 문항

ㄴ. 하이데거는 현대 기술의 도발적 요청으로 자연은 이제 자연 그 자체가 아니라 재료의 원천이 되고 사물은 주문에 의해 그 위치가 규정되며, 인간 자신도 하나의 자원으로 간주된다고 보았다.

298-9

294-2 해설 참고

‘닭달’이 자연을 하나의 에너지 저장고로 전락시켰다고 봅니다.

299-1, 299-10

요나스는 인류가 기술로 얻은 권력의 크기와 인간의 책임 범위는 비례한다고 봅니다. 이는 인간의 기술이 발전할수록 인간이 져야 하는 책임의 범위는 그만큼 커지고 확대된다는 뜻입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그 기술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 시공간적 범위가 확대되므로, 책임의 범위 역시 필연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99-3

요나스에 따르면 미리 사유된 위험, 즉 인류가 존속하지 못하게 되고 미래 세대가 존재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위험(비록 아직 실제로 경험되지는 않았지만 미리 사유될 수는 있는 위험)은 현세대의 책임을 도출하는 근원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스가 제시하는 ‘공포의 발견술’입니다(위험에 대한 공포에서 현세대가 져야 하는 책임을 발견하는 것).

26 수능완성 정답과 해설 38쪽 12번 문항

⑤ 요나스는 미리 사유된 위험 자체로부터 새로운 윤리적 원리를 도출해야 한다고 보았다. 요나스는 이러한 방법을 ‘공포의 발견술’이라고 불렀다.

300-1

하이데거는 기술의 도구적 속성을 인식하는 것과, 기술의 진정한 본질인 탈은폐적 속성에 대해 고찰하는 것이 양립 가능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하이데거는 기술의 도구적 속성, 즉 기술이 인간의 목적을 위한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그러나 기술의 ‘본질’은 도구적 속성이 아니라 탈은폐에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300-3

요나스에 따르면 새로운 윤리는 권리나 호혜성의 이념과 연관되지 않은 것, 예컨대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동식물이나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 그리고 현세대의 비호혜적이고 일방적인 책임에 대한 개념 등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300-4

요나스는 연구자의 외적(사회적) 책임을 중시합니다.
295-7 해설 참고

300-5, 300-6

요나스는 기술이 가져올 긍정적인 효과보다 부정적인 효과에 더욱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기술의 진보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고 그것에서 책임을 도출해 내는 것(공포의 발견술)이야말로 인간의 윤리적 의무라고 주장합니다.

300-8

요나스는 기술이 선하고 정당한 목적을 위해 사용된다 고 하더라도 인간이 미처 예측하지 못한 결과가 존재 할 수 있으므로, 언제나 기술의 영향에 대한 신중하고 비판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299-5

하이데거도 기술이 인간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유용한 수단(도구)이 될 수 있음을 인정은 합니다. 294-8 해설 참고

299-7

요나스와 하이데거 모두 현대 과학 기술이 인간이 아닌 존재, 즉 자연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요나스에 따르면 그렇기 때문에 현세대는 과학 기술의 발전이 자연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며, 하이데거의 경우 현대 과학 기술의

26 수능완성 133쪽 7번 문항

르. 요나스 : 기술이 선하고 정당한 목적을 위해 사용될 때에도 기술의 영향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O)

하이데거는 기술에 대한 가치 중립적 태도야말로 인간에 대한 자연의 지배를 심화시키는 위험한 태도라고 봅니다. 295-1 해설 참고

300-9

요나스는 새로운 책임 윤리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만이 아니라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 예컨대 미래 세대의 존재 역시 고려한다고 봅니다. 해당 선지의 경우 책임 윤리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만을 근거로 성립한다는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301-6

아스퍼스와 하이데거는 모두 인간이 설정한 목적에 따라 기술이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도 있고 부정적인 효과를 낼 수도 있으므로 기술의 활용 맥락에 대한 윤리적 가치 판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295-2 해설 참고

301-10

요나스는 현세대의 일차적 책임이 미래 세대가 존재하게 하는 것에, 그리고 현세대의 이차적 책임이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배려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배려하려면 일단 미래 세대가 존재부터 해야 하기에, 미래 세대가 존재할 수 있게 하는 것(인류의 존속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현세대의 일차적 책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4 6월 모의평가 13번 문항

요나스 제시문 中 : 인류의 존속은 부정적 방식으로 강력해진 기술 문명의 시대에 있어서 우리 모두의 일차적 책임이다.

302-4

293-7 해설 참고

302-5

요나스에 따르면 책임의 본질적 속성은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공포가 아니라, 책임 있는 행위를 하도록 북돋우는 공포에 있습니다.

303-2

요나스는 미리 사유될 수 있지만 아직 경험되지는 않은 위험을 윤리의 나침반으로 삼아야 한다고 봅니다. 299-3 해설 참고

303-5

요나스는 기술 발전이 가져올 희망적인 미래보다는 부정적 결과에 대한 공포를 바탕으로 새로운 윤리를 정립해야 한다고(공포의 발견술) 주장합니다.

303-7

299-1, 299-10 해설 참고

303-8

하이데거에 따르면 기술은 사물의 드러나지 않은 면을 밖으로 드러내 주는 탈은폐의 방식입니다. 사물의 드러난 면을 안으로 숨겨 주는 것은 탈은폐가 아니라 은폐죠?

303-9

베이컨은 인간 중심주의 사상가로, 애초에 자연의 내

302-1

요나스에 따르면 생태학적 정언 명령은 행위의 결과를 고려하는 무조건적 의무입니다. 293-10 해설 참고

302-2

재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책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현세대뿐입니다.

304-2 해설 참고

303-10

하이데거와 베이컨 모두 과학 기술이 자연에 대한 인간의 영향력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299-7 해설 참고

306-5

요나스는 과학 기술의 활용과 자연 보전이 양립 가능하다고 봅니다. 304-3 해설 참고

304-2

요나스는 비이성적 존재, 즉 동물과 식물을 비롯한 자연도 책임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요나스가 보기에 책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실존하는 이성적 존재, 즉 현세대뿐입니다.

306-7

요나스에 따르면 새로운 윤리는 인간의 선, 그리고 인간 외적인 것의 선 – 예컨대 동물, 식물, 자연의 선을 탐구해야 합니다. 해당 선지의 경우 ‘인간의 선이 아닌’이라는 말이 잘못되었습니다.

26 수능특강 정답과 해설 40쪽 9번 문항

ㄴ. 요나스에 따르면 모든 생명체는 그 자신이 고유한 목적이므로, 인간은 인간의 선뿐만 아니라 인간 외적인 사물의 선에 관해서도 탐구해야 한다.

304-3

요나스는 과학 기술이 가져오는 혜택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요나스에 따르면 과학 기술이 가져오는 혜택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과학 기술이 가져올 수 있는 장기적 결과에 대해 신중하게 고찰한다면, 과학 기술의 점진적인 발전과 더불어 인류의 존속 역시 가능케 할 수 있습니다.

306-8

요나스에 따르면 책임의 근원적 공포 속에서 인간이 방지해야 하는 악과 인간이 추구해야 하는 선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물론 요나스는 선보다 악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물론 선의 추구를 아예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305-2

300-9 해설 참고

306-9

요나스는 인류의 무한한 생존을 위해 기술 권력의 한계를 설정하고, 기술의 활용 결과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과학자들에게 사회적(외적)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 봅니다.

305-3

요나스에 따르면 현세대와 미래 세대는 상호 간 의무를 가지지 않습니다. 애초에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은 현세대뿐이기 때문입니다. 즉 현세대는 미래 세대에 대해 비호혜적이고 비상호적이며 오직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306-10

요나스에 따르면 책임 윤리는 이미 행해진 것에 대한 보상적 책임뿐만 아니라, 아직 행해지지 않은 것에 대한 예전적(사전적) 책임 역시 포함합니다. 296-4 해설 참고

305-8

요나스에 따르면 미래 세대는 아직 존재할 수 없으므로 책임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요나스가 보기에

307-1

294-8 해설 참고

307-10

베이컨과 요나스 모두 인간이 의무의 대상에 대해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베이컨의 경우 인간 자신에게 의무가 되는 대상은 오직 다른 인간뿐인 것이고, 요나스의 경우에는 동물, 식물, 자연, 그리고 미래 세대까지 모두가 인간 자신에게 의무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26 수능완성 79쪽 2번 문항

- ⑤ 베이컨과 요나스 : 인간은 자신에게 의무가 되는 대상에 대해 책임을 다해야 하는가? (O)

308-2

레건에 따르면 일부 동물은 도덕적 무능력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주체가 되기 위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그 동물은 인간의 경험적 좋음에서 독립한 가치, 즉 존재가 스스로 자기 안에서 가지는 가치, 다시 말해 그 존재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존엄한 가치인 ‘내재적 가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308-5

슈바이처는 불가피하게 생명을 해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생을 한 인간은 불가피한 경우에도 반드시 무한한 도덕적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308-7

레오폴드와 테일러 모두 인간이 어떠한 생명체보다도 본래적으로 우월한 존재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는 레오폴드와 테일러 모두, 비단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를 동등한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308-8, 308-9

테일러에 따르면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는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고, 고유한 선을 지닌다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그러나 각자 추구하는 목적, 각자의 고유한 선의 내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예컨대 개미핥기는 개미를 먹지만, 인간 역시 개미를 먹는 것은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309-2

레오폴드에 따르면 인간은 대지의 관리자, 지배자, 정복자이기보다는, 다른 존재들과 마찬가지로 대지의 평범한 구성원일 뿐입니다.

20 6월 모의평가 6번 문항

레오폴드 제시문 : 흙, 물, 식물, 동물, 인간을 포함하는 생명 공동체는 생명적 성질을 지닌다. 인간은 생명 공동체의 지배자가 아니며, 대지 위의 모든 존재는 평등한 구성원이다.

309-8

도가에 따르면 자연은 아무런 목적이 없지만, 동시에 목적이 없고 자연에 따라 움직이는 ‘무목적의 질서’를 가진 무위의 체계입니다. 해당 선지의 경우 자연은 질서가 없다는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309-9

아리스토텔레스와 테일러 모두 모든 생명체가 목적을 추구한다고 봅니다. 다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식물의 목적은 동물의 목적에, 동물의 목적은 인간의 목적에 종속된다고(“식물은 동물을 위해, 동물은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 보는 반면, 테일러는 한 개체의 목적이 다른 개체의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며, 각 생명체는 고유의 선(목적)을 추구한다고 봅니다.

26 수능완성 정답과 해설 28쪽 9번 문항

그. 아리스토텔레스와 테일러 모두 생명 활동을 하는 존재들은 자신의 고유한 목적의 실현을 위해 활동한다고 보았다.

310-3

레건에 따르면 삶의 주체가 되는 존재 중에는 인간도 있고 동물도 있는데, 인간은 도덕적 행위 능력을 가질 수 있지만 모든 동물은 도덕 무능력자입니다.

310-4

레건에 따르면 모든 삶의 주체는 내재적 가치를 갖습니다.

310-5

레건에 따르면 동물은 인간과 동등한 도덕적 대우를 받아야 하며, 다만 그 대우의 구체적인 방식이 (인간과 동물의 생물학적 차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 뿐입니다. 동일하게 도덕적 고려의 대상인 인간, 그리고 삶의 주체에 해당하는 동물을 도덕적으로 대우하는 정도는 분명히 동등해야 할 것입니다.

310-8

도가에서는 애초에 인간이 도덕적 본성을 타고난다고 보지 않습니다. 도가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자연적이고 소박한 본성을 타고날 뿐입니다.

310-10

싱어는 인간의 이익을 위해 감각적 존재를 희생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싱어가 반대하는 것은 감각적 존재가 애초에 인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들의 이익을 고려조차 하지 않거나, 아니면 차별적으로 고려하는 것입니다. 싱어가 보기에 만약 (인간을 비롯한) 모든 감각적 존재의 이익을 고려한 결과, 어떤 감각적 존재를 희생시키는 것이 다수의 이익 증진이라는 결과를 불러

온다면 그 존재를 희생시키는 것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물론 공리 증진을 위해).

311-1

싱어에 따르면 종 차별주의를 지양하고 인간과 동물을 동등하게 고려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인간과 동물을 동일하게 대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과 동물의 동일한 대우를 주장하고 차별적 대우를 반대하는 사상가는 없습니다. 인간에게 라면 한 그릇을 끓여주었다면 동물에도 라면 한 그릇 끓여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상가는 상식적으로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26 수능특강 정답과 해설 37쪽 3번 문항

ㄹ. 싱어는 인간의 이익과 동물의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할 것을 주장했지만, 동물과 인간을 동일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았다.

311-2

애초에 인간이 아닌 존재는 도덕적 행위 능력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은 모든 사상가의 공통 입장입니다. 즉 레건이라고 해서 동물에게 인간과 동등한 수준의 도덕적 행위 능력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311-3

싱어는 인간과 동물의 생물학적 차이 때문에, 인간과 동물이 각기 선호하는 이익 관심의 대상이 물론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인간이 라면 한 그릇을 선호할 때, 동물은 사료 혹은 풀을 선호할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311-5

레오폴드는 자연 그 자체의 가치를 인간의 이해(利害), 즉 인간의 이익과 손해에 따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레오폴드에 따르면 자연은 인간의 이해관계와 무관한 가치를 지니며, 인간은 그러한 가치를 존중할 의무가 있습니다.

311-6

309-2 해설 참고

311-8

네스에 따르면 일반적인 경우에는 개별 생명체를 살생하는 행위가 금지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자기 보존을 위한 경우에는 생명체를 살생하는 행위가 허용됩니다.

311-9

테일러에 따르면 무생물은 애초에 고유의 선도 가지지 않습니다. 테일러가 보기에 무생물은 자신의 목적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311-10

칸트는 인간 이외의 자연물을 단순한 수단으로 대우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칸트에 따르면 아무 이유 없이 동물을 학대하거나 자연물을 파괴하는 것은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에 배치되므로 잘못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칸트가 동물을 단순한 수단이 아니라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해 주어야 한다고까지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312-3

싱어는 쾌고 감수 능력이 동물의 이익에 인간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유일한 근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레건에 따르면 삶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쾌고 감수 능력 외에도 자의식, 미래에 대한 희망 등을 가져야 하며, 따라서 레건의 입장에서는 쾌고 감수 능력이 동물의 이익에 관심을 두어야 하는 유일한 근거가 아니게 됩니다.

312-4

싱어와 레건 모두 동물의 고통을 초래하지 않는 행위도 비도덕적일 수 있다고 봅니다. 싱어의 경우 동물의 고통을 초래하지 않아도 인간의 극심한 고통을 초래하거나 결과적으로 공리를 감소시킨다면 그 행위는 비도덕적일 수 있으며, 레건의 경우 동물에게 고통을 주지 않더라도 인간과 삶의 주체인 동물의 도덕적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행위는 비도덕적일 수 있습니다.

312-5

309-9 해설 참고

312-6

무엇이 옳은 행동인지를 분별하여 행동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은 도덕적 판단 능력과 도덕적 행위 능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상가가 오직 인간만이 도덕적 판단 능력과 도덕적 행위 능력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해당 선지의 경우 삶의 주체인 동물이 도덕적 판단 능력과 도덕적 행위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312-8

레건은 모든 동물이 아니라 일부 동물(삶의 주체가 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는 동물)이 도덕적 권리를 갖는다고 봅니다.

싱어와 레건은 모두 모든 동물을 도덕적 고려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지에 '모든' 동물이 아니라 그냥 '동물'이라고만 등장하였을 경우, 이 경우에는 각 사상가(싱어/레건)의 입장에서 도덕적 고려 대상에 해당하는 그 '일부 동물'로 읽어 주셔야 합니다.

313-1

싱어에 따르면 자연 내의 존재에 의해 경험되는 모든 고통은 도덕적 고려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선지를 보시고 “엥? 존재는 무생물까지 포함하는 개념인데... 무생물은 고통을 경험할 수 없잖아?”라고 생각하셨다면, 독해를 잘못하신 것입니다. 잘 생각해 봅시다. 지금 해당 선지는 모든 존재가 고통을 경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고, 자연 내의 존재에 의해 경험되는 모든 고통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떤 존재이든 간에, 자연 내의 한 존재에 의해 어떤 고통이 경험된다면, 그렇게 경험되는 모든 고통은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해당 선지는 자연 내의 모든 존재가 고통을 경험할 수 있다는 주장을 전혀 험축하고 있지 않습니다. 선지를 올바르게 독해하는 습관을 기릅시다.

313-3

테일러에 따르면 생명체에 대한 인간의 도덕적 의무는 상호 간에 충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컨대 어떤 생명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다른 생명체를 어쩔 수 없이 죽여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테일러가 제시하는 생명체에 대한 인간의 4대 의무는, 절대적 의무가 아닌 예외가 존재하는 의무입니다.

26 수능특강 122쪽 1번 문항

ㄴ. 테일러 : 인간은 고유한 선을 지닌 존재를 해치지 않을 절대적 의무를 실천해야 한다. (X)

23 수능 10번 문항

ㄱ. 테일러 : 인간은 생명체를 해치지 않을 절대적 의무를 실천해야 한다. (X)

313-5

칸트에 따르면 인간 외 존재들의 경우, 내재적 가치는 가지지 못하지만 수단적(도구적) 가치는 가질 수 있습니다.

26 수능완성 정답과 해설 43쪽 15번 문항

ㄱ. 칸트는 비이성적 개체가 인간을 위한 수단적 가치를 갖는다고 보았다.

22 6월 모의평가 10번 문항

ㄱ. 칸트 : 인간 이외의 존재에게는 어떠한 가치도 부여되지 않는다. (X)

313-7

싱어는 물론 도덕적 고려의 구체적인 내용은 고려 대상의 특징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311-1 해설 참고

313-10

테일러는 생태계 내의 모든 존재가 도덕적으로 대우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존재’는 무생물을 포함하는 개념인데, 테일러에 따르면 무생물은 도덕적 고려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14-1

칸트에 따르면 인간에게 이익을 주는 동물이든 그렇지 않은 동물이든, 동물은 이성이 없는 존재라는 점에서 결코 목적 그 자체로서의 가치는 가질 수 없으며, 오직 수단적(도구적) 가치만 가질 수 있습니다.

26 수능특강 120쪽 1번 문항

① 칸트 : 오랫동안 봉사를 수행한 늙은 말은 도덕적 지위를 지닌다. (X)

26 수능특강 정답과 해설 37쪽 1번 문항

문제분석 中 : 칸트는 이성이 없는 동물은 목적으로 대우받을 수 없지만, 동물이 인간을 위해 수행한 봉사에 대한 감사는 간접적으로 인간의 의무에 속한다고 보았다.

314-2

테일러에 따르면 모든 유기체(생명체)는 인간과 마찬가지로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생명체가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테일러가 보기엔 식물 등은 의식을 결여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그들 역시 무의식적으로 목적을 추구하는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고,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 존중의 대상이 됩니다. 해당 선지의 경우 모든 유기체가 인간과 동등한 의식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314-3

테일러는 이성적 존재가 언제나 자신의 이익보다 다른 생명체의 선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테일러에 따르면 인간의 기본적인 이해관계와 동식물의 부차적인 이해관계가 충돌할 경우, 인간의 기본적인 이해관계가 우선될 수 있습니다.

314-6

테일러와 레오플드 모두 개별 생명체의 이익과 생명 공동체의 안정성이 동등하게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테일러의 경우 개별 생명체의 이익을, 레오플드의 경우 생명 공동체의 안정성을 더욱 중시합니다.

314-7

테일러에 따르면 내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모든 유기체(생명체) 간에 서로 지켜야 할 도덕적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인간만이 다른 생명체들에 대해 지켜야 하는 도덕적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는 애초에 도덕적 행위 능력이 인간에게만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314-10

테일러는 개별 생명체의 고유한 선만을 고려해야 한다고 볼 뿐, 생명 공동체의 고유한 선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315-2

유교와 도가에서는 모두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추구하며, 자연에 대한 인간의 무분별한 개입은 만물의 본성을 거스르는 행위가 된다고 봅니다.

315-6

레건에 따르면 동물에 대한 도덕적 고려는, 인간의 이익 관심에 따라 달라지는 조건부적 의무가 아니라 동

물의 도덕적 권리 존중을 위해 무조건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는 정언 명령입니다.

315-7

311-2 해설 참고

315-9

레건에 따르면 인간에게 동물 종에 대한 직접적인 도덕적 의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레건은 개체론적 입장을 취하며, 인간은 삶의 주체에 해당하는 개별 동물에 대한 직접적인 도덕적 의무를 가지지, 동물의 군집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종이라는 개념 그 자체에 대해 직접적인 도덕적 의무를 가지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315-10

레건에 따르면 동물을 수단으로만 대우하는 것이 나쁜 이유는, 동물이 고통을 느끼게 된다는 사실보다는 동물의 도덕적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따라서 레건은 예컨대 동물에게 아무런 고통을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동물을 단지 수단으로만 이용하는 모든 처사(동물 실험을 비롯한)에 반대합니다.

316-3

싱어와 테일러와 달리 아퀴나스는 어떤 존재의 도덕적 지위가 지성의 소유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보며, 따라서 유일하게 지성적 존재인 인간만이 도덕적 지위를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316-6

309-9 해설 참고

316-7

테일러에 따르면 오직 모든 생명체만이 고유의 선을

갖습니다.

316-8

싱어는 유정적 존재의 구체적인 특징과는 무관하게, 어떤 존재가 유정성을 갖는다면 그 존재는 무조건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317-1

레건은 내재적 가치를 지니는 존재를 수단으로 이용할 수는 있지만, 내재적 가치를 지니는 존재는 단순히 수단으로만 이용되어서는 안 되며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317-5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가 목적을 추구하는 존재라고 봅니다. 309-9 해설 참고

317-6

아리스토텔레스, 테일러, 레오플드 모두 이성적 능력이 있는 개체, 즉 인간을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애초에 인간을 도덕적 고려의 대상에서 배제하는 사상가는 없습니다.

317-8

테일러라고 해서 자연 내의 모든 존재를 도덕적으로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313-10 해설 참고

317-9

칸트도 인간 외 존재들의 수단적 가치는 인정을 합니다. 313-5 해설 참고

318-1

칸트와 테일러 모두 존엄성을 지닌 모든 존재가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칸트의 입장에서 존엄성을 지닌 존재란 오직 인간뿐이고, 테일러의 입장에서 존엄성을 지닌 존재는 모든 생명체를 포괄하는 것입니다.

318-2

테일러와 레오플드는 동물 학대가 동물의 도덕적 지위를 존중하지 않는 행위이므로 나쁘다고 봅니다. 반면 칸트는 동물 학대가 인간의 도덕성에 기여하는 자연적 소질을 약화하여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에 배치되므로 나쁘다고 봅니다.

318-3

317-8 해설 참고

318-4

레오플드는 대지 이용의 문제를 고려할 때 물론 경제적 관점에서 대지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할 수 있지만, 동시에 심미적, 윤리적 관점에서도 대지 이용의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26 수능완성 78쪽 〈자료와 친해지기〉

레오플드 자료 中 : 바람직한 대지의 이용을 오직 경제적 문제로만 생각하지 말라. 낱낱의 물음을 경제적으로 무엇이 유리한가 하는 관점뿐만 아니라 윤리적, 심미적으로 무엇이 옳은가의 관점에서도 검토하라.

19 6월 모의평가 9번 문항

레오플드 제시문 : 새로운 윤리는 도덕적, 심미적 관점을 담아 옳고 그름의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생명 공동체의 온전함에 기여해야 한다. 그러므로 대지의 사용을 이익의 문제로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318-6

칸트는 애초에 비이성적 존재에 대한 도덕적 의무는 존재하지 않으며, 오직 비이성적 존재와 관련한 도덕적 의무만 존재한다고 봅니다.

319-1

싱어에 따르면 쾌고를 느낄 수 있는 동물이라고 해서 존속할 권리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싱어는 쾌고를 느낄 수 있는 동물은 동등한 도덕적 고려를 받을 자격을 가진다고 볼 뿐, 존재를 존속할 권리까지 가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싱어는 공리주의 사상가로, 만약 다수의 이익을 증진할 수 있다면 어떤 개체를 희생시키는 행위도 용인할 여지가 있으며, 어떤 개체의 고통 방지와 달리 어떤 개체가 존속한다는 사실 자체는 애초에 싱어의 입장에서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319-2

싱어는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동물 실험이 인류의 복지를 막대하게 증진할 수 있다면 동물 실험이 허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26 수능특강 115쪽 <자료 플러스>

싱어 제시문 中 : 인간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남아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동물을 이용하는 것이라면, 저는 동물을 이용하는 실험이나 연구를 무조건 금지하자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연구의 모든 단계에서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면, 동물 이용을 정당화할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연구자들은 동물을 이용하는 연구의 목표가 중대한 질병의 치료법을 개발하는데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319-3

테일러는 기계는 목표 지향적인 활동을 보이지만 기계는 고유의 선을 가지지 않으므로 도덕적 고려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즉 테일러가 보기엔 목표 지향적인 활동을 보이는 모든 존재가 도덕적 고려의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26 수능특강 116쪽 <자료 플러스>

테일러 제시문 中 : 기계는 목표 지향적인 활동을 보이지만, 독립적인 존재로서 고유의 선을 지니지 않는다. 그들의 '선'은 인간의 목적에 효과적인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해 '증진'된다. 반면에 살아 있는 식물이나 동물은 인간

존재가 고유의 선을 지닌 것과 동일한 의미로 고유의 선을 지니고 있다.

319-5

테일러는 인간이 생태계를 조작하거나 통제하려는 시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테일러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불간섭의 의무'입니다.

319-6

테일러에 따르면 유기체의 자유란, 유기체가 자신의 본성의 법칙에 따라 생존, 성장, 번식 등을 위해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입니다.

26 수능완성 83쪽 9번 문항

테일러 제시문 : 자신의 본성의 법칙에 따라 고유의 선을 증진하고 보호할 능력과 기회가 있는 유기체는 자유롭다. 그 유기체가 고유의 선을 실현하는 것을 어렵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만드는 제약이 있다면, 그만큼 그 유기체는 자유롭지 못하다. 반면 제약의 일부 또는 전부가 사라져 유기체가 환경에 적응하는 데 성공하고 생명을 보존하고 안녕을 증진할 수 있다면 그 유기체는 자유롭다.

319-7

314-1 해설 참고

319-9

칸트뿐만 아니라 본래 모든 사상가가 도덕적 의무를 따를 수 있는 존재, 즉 도덕적 행위 능력이 있는 존재는 오직 인간뿐이라고 봅니다.

319-10

칸트는 애초에 동물에 대한 의무를 인정하지 않으며, 인간은 동물과 관련하여서는 오직 간접적 의무만을 가진다고 봅니다.

320-5, 320-9

311-1 해설 참고, 311-3 해설 참고

지키기 위한 경우 등에는 허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321-1

테일러는 인간이 야생 동물을 속이거나 배신하거나 기만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도덕적 의무 중 하나라고 봅니다. 이것이 바로 테일러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성실(신의)의 의무’입니다.

321-3

레건은 도덕적 무능력자 중에서도 삶의 주체가 되기 위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일부 동물은 도덕적 지위를 지니는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321-5

레건에 따르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영위해 나갈 능력이 있는 동물이 있으며, 그러한 동물은 바로 삶의 주체가 됩니다.

321-6

칸트와 레건 모두 내재적 가치를 지닌 존재는 그들의 내재적 가치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다만 칸트의 경우 내재적 가치를 지닌 존재는 오직 인간뿐이며, 레건의 경우 내재적 가치를 지닌 존재는 인간과 일부 동물까지입니다.

321-7

애초에 도덕적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 즉 도덕적 행위 능력이 있는 존재는 오직 인간뿐이라는 것은 모든 사상가의 공통 입장입니다.

321-8

레오플드는 개별 유기체의 생명을 해치는 행위가 자기 보존을 위한 경우, 또한 생태계 전체의 조화와 균형을

321-9

레오플드뿐만 아니라 슈바이처 역시 생명체 간 차이를 두는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는 어떤 생명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다른 생명체를 죽이는 행위가 불가피하다면 허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도 살생을 한 인간은 무한한 도덕적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26 수능특강 정답과 해설 38쪽 6번 문항

⑤ 슈바이처는 두 생명 중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다른 생명을 희생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생명체 간 차이를 두는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볼았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희생된 생명에 대한 책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322-1

도가에서는 만물을 평등하게 바라보지만, 유교에서는 인간이 다른 존재들과 달리 유일하게 천명을 따라 도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존재라는 점에서 인간과 인간 외 존재들의 평등성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26 수능특강 121쪽 7번 문항

⑤ 유교와 도가: 인간과 자연 존재 간의 도덕적 고려에서 분별적 차이를 두지 말아야 한다.

26 수능특강 정답과 해설 38쪽 7번 문항

⑤ 유교에서는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천인합일(天人合—)을 강조하지만, 인간과 자연 존재 간의 도덕적 고려에서 분별적 차이를 둔다.

322-3

불교에 따르면 불성은 모든 생명체가 태고나는 본성이다, 형성의 대상이 아닙니다.

26 수능특강 121쪽 8번 문항

ㄴ. 불교: 불성을 형성한 생명체에 대해 자비를 실천해야 한다. (X)

322-5

칸트는 애초에 ‘동물에 대한 의무’가 없다고 봅니다. 칸트에 따르면, 인간은 동물과 관련하여서는 오직 ‘동물과 관련한 (간접적) 의무’만 가질 수 있을 뿐입니다. 한편 싱어와 테일러는 모두 동물에 대한 의무를 인정합니다.

그런데 싱어의 입장에서 인간이 인간에 대해 의무를 가지는 이유는 인간이 쾌고를 느낄 수 있기 때문이며, 인간이 동물에 대해 의무를 가지는 이유 역시 동물이 쾌고를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싱어가 보기엔 인간에 대한 의무의 근거와 동물에 대한 의무의 근거는 동일하며, 따라서 동물에 대한 의무가 인간에 대한 의무의 근거로 정당화 가능하게 됩니다.

테일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테일러는 인간에 대한 의무나 동물에 대한 의무나 모두 그 정당화 근거는 그 존재가 목적론적 삶의 중심으로서의 개별 유기체라는 데 있다고 봅니다.

26 수능특강 122쪽 1번 문항

그. 테일러 : 동물에 대한 의무는 인간에 대한 의무의 근거로 정당화될 수 있다. (O)

23 수능 10번 문항

ㄷ. C: 인간에 대한 의무의 근거가 동물에 대한 의무를 정당화할 수 있다. (O) (단, C는 테일러, 칸트, 싱어 중 테일러와 싱어만의 공통 입장이다.)

322-6

테일러에 따르면 인간은 고유한 선을 지닌 존재를 해치지 않을 의무(불침해의 의무)를 가지나, 이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 보존을 위한 경우 인간이 생명체를 죽일 수 있음을 테일러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생운에는 ‘절대적’이라는 말이 종종 등장하는데, 이때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예외가 아예 없어야 합니다.

예컨대 톨스의 입장에서 기본적 자유가 절대적 권리가 될 수 없는 이유는 기본적 자유도 제한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었지요.

마찬가지입니다. 테일러의 입장에서도 인간의 4대 의무를 필연적으로 지키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대표적으로 자

기 보존을 위한 경우), 생명체에 대한 인간의 의무가 절대적 의무는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322-7

칸트는 도덕적 무능력자, 즉 인간 외 존재도 수단적 가치는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313-5 해설 참고

322-9

싱어는 쾌고 감수 능력이 어떤 존재가 도덕적 고려 대상이 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면서, 동시에 쾌고 감수 능력이 있으면 그 존재는 언제나 도덕적 고려 대상이 되므로 도덕적 고려 대상이 되기 위한 충분 조건 역시 맞다고 봅니다. 반면 레건은 쾌고 감수 능력이 도덕적 고려 대상, 즉 삶의 주체가 되기 위한 요건 중 하나이지만(즉 필요 조건은 맞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라고(즉 쾌고 감수 능력이 있다고 다 도덕적 고려 대상, 다시 말해 삶의 주체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323-1

테일러와 달리 레오플드는 유기체(생명체)가 아니어도, 즉 무생물 혹은 자연 그 자체도 도덕적 존중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323-3

아퀴나스에 따르면 동물은 애초에 도덕적 고려 대상이 아니므로 인간이 동물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 얼마든지 허용될 수 있으며, 또한 신은 인간에게 동물을 사용할 권한을 주었으므로 ‘동물에 대한 죄’라는 것은 애초에 있을 수 없습니다.

323-4

슈바이처에 따르면 지각 능력이 없더라도 모든 생명체는 기본적으로 도덕적 존중의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식물은 무언가를 지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의 의지가 있다는 점에서 도덕적 존중의 대상입니다.

323-5

아퀴나스에 따르면 인간과 자연 둘 다 신의 창조물이지만, 신은 인간과 자연 사이에 분명한 위계를 두었습니다. 즉 신에 따르면 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동식물이나 자연보다 더 우월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신은 인간에게 동식물이나 자연을 사용하고 그들을 관리할 권한을 부여하기도 하였습니다(“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26 수능특강 123쪽 4번 문항

아퀴나스 제시문 : 인간이 동물을 죽이거나 혹은 어떤 다른 방법으로 부리는 것은 부정의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동물은 신의 섭리에 따라 당연하게 인간에 의해 이용되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ㄷ. 아퀴나스 : 신의 섭리에 따라 창조된 자연과 인간은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 (X)

323-6

아퀴나스뿐만 아니라 슈바이처 역시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라면 인간 이외의 생명을 해치는 것이 불가피하게 허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323-7

칸트는 도덕적 행위 능력이 있는 존재, 즉 인간만이 도덕적 지위를 지닌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보므로, 도덕적 지위를 지닌 존재와 도덕적 행위 능력이 있는 존재의 범위가 일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반면 레건과 싱어는 도덕적 행위 능력이 있는 존재, 즉 인간 외에

도 도덕적 지위를 지닌 존재가 있다고 보므로, 두 범위가 일치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323-9

싱어는 애초에 모든 동물이 개별적 이익을 가진다고 보지 않습니다. 싱어에 따르면 어떤 존재가 이익을 가지려면 그 존재가 기본적으로 이익 관심, 즉 쾌고 감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323-10

테일러는 인간이 개별 유기체의 자유를 간섭하거나 생태계를 개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바로 테일러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불간섭의 의무’입니다.

324-1

레오폴드와 테일러 모두 모든 생명체가 인간의 필요와는 무관하게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324-3

칸트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파괴하는 것이 자연과 관련한 (간접적) 의무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지, 자연에 대한 (직접적) 의무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칸트에 따르면 인간은 인간에 대해서만 의무를 가질 뿐, 동물에 대한 의무, 자연에 대한 의무는 가지지 않습니다.

324-4

칸트에 따르면 자연은 그 자체로 가치를 지니지 않습니다. 즉 칸트가 보기에 자연에 내재되어 있는 내재적 (본래적) 가치란 애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연은 오직 인간을 위한 도구로서 수단적(도구적) 가치만을 가질 수 있을 뿐입니다.

325-4

테일러는 모든 생명체가 의식이 있는 것은 아니며, 예컨대 식물 같은 의식이 없는 존재도 생명체로서 자신의 고유한 선을 추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325-8

도가에서는 애초에 자연의 동식물이든 인간이든 인애로 대해서 한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인애, 즉 인에 기반한 사랑이란 유교에서 주장하는 것으로, 도가에서는 애초에 인(仁)을 인위적인 규범으로 간주하며 비판합니다.

326-6

네스에 따르면 인간은 생명 활동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생명체들을 인간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26 수능완성 80쪽 3번 문항

르. 네스 : 인간은 생명 활동을 위해 필수적이더라도 생명체들을 결코 이용해서는 안 된다.

326-7

칸트에 따르면 자연의 개체가 모두 도덕적 권리를 지니는 것은 아닙니다. 칸트가 보기에 도덕적 권리를 지니는 것은 오직 이성적 존재인 인간뿐입니다.

327-1

레건은 생명체의 모든 가치가 인간에 대한 효용에 근거해 결정된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레건에 따르면 인간과 일부 동물(삶의 주체에 해당하는 동물)은 인간에 대한 효용과는 독립적으로 존재 안에 이미 내재되어 있는 가치, 즉 내재적(본래적) 가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26 수능완성 정답과 해설 27쪽 4번 문항

르. 칸트와 달리 레건은 삶의 주체가 되는 동물은 인간의 삶에 대한 기여나 효용과는 상관없이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고 보았다.

327-2, 327-5

슈바이처는 인간이 자신의 영양 공급을 위한 경우 등 반드시 필요한 경우 다른 생명을 섭취하거나 생명을 살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였다고 하더라도 인간은 생명체를 죽인 것에 대해 무한한 도덕적 책임 의식을 지녀야 합니다.

327-6

칸트와 테일러 모두 인간이 이성적 능력이 없는 자연의 동식물에 대해 잔혹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칸트의 경우에는 자연의 동식물과 관련한 간접적 의무가 존재하기 때문이고, 테일러의 경우 인간은 자연의 동식물(생명체)에 대한 도덕적 의무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327-9

오직 인간만이 도덕적 행위 능력을 가질 수 있으므로, 생명체에 대한 도덕적 의무 역시 인간만 질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테일러라고 해서 인간과 동물이 모두 생명체에게 해악을 주는 행위를 자제할 의무를 갖는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328-5

테일러는 동물과 식물이 생명체로서 고유한 목적, 대표적인 예시로 자신의 선 실현과 종에 대한 재생산(번식)의 경향성을 갖는다고 봅니다.

328-6

싱어에 따르면 어떤 존재의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해야 하는 기준은 쾌고 감수 능력입니다. 반면 테일러는 쾌고 감수 능력의 보유 여부에 따라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결정되거나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받을 자격을 가지게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328-7

테일러는 개체론적 입장을 취하는 생명 중심주의 사상가로서, 생명 공동체의 구성원인 인간, 동물, 식물만이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라고 보지, 생명 공동체 자체까지 도덕적 고려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328-10

칸트에 따르면 동물은 비이성적 존재이지만, 동시에 인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유용한 수단으로서의 가치, 즉 수단적(도구적) 가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313-5 해설 참고

329-4

309-9 해설 참고

329-5

동물 중심주의 사상가 싱어와 레건은 동물에 대한 의무를 주장하지만, 칸트는 인간이 동물과 관련한 간접적 의무만 가질 뿐 동물에 대한 의무를 가짐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329-6

레건은 인간이 아닌 일부 동물이 도덕적 지위를 가질 수 있는 것이 비단 쾌고 감수 능력 때문만은 아니며, 삶의 주체가 되기 위한 다른 요건까지 모두 충족하여 그 존재가 삶의 주체가 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한편 싱어는 인간이 아닌 일부 동물이 도덕적 지위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쾌고 감수 능력 때문만이 맞다고 봅니다. 칸트는 애초에 인간이 아닌 일부 동물이 도덕적 지위를 가질 수 없다고 봅니다.

26 수능완성 113쪽 8번 문항

- . C: 인간이 아닌 일부 동물이 도덕적 지위를 지닐 수 있는 것은 쾌고 감수 능력 때문만은 아니다. (O) (단, C는 싱어, 칸트, 레건 중 레건만의 입장이다.)

329-7

313-5 해설 참고

329-8

테일러는 개체론적 관점에서 동물의 내재적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칸트는 애초에 동물의 내재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레오플드는 개체론적 관점이 아닌 전체론적 관점을 취합니다.

329-9

레오플드는 도덕적 고려 대상인 생태계가 경제적 가치로 평가될 수 있지만, 경제적 관점에서만 생태계를 바라보아서는 안 되며, 심미적, 윤리적 관점에서도 생태계를 바라보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318-4 해설 참고

329-10

칸트, 테일러, 레오플드 모두 동물을 대하는 인간의 행위가 도덕적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칸트는 동물을 학대하는 인간의 행위가 인간에 대한 의무와 배치되므로 옳지 않다고 봅니다. 테일러와 레오플드는 모두 기본적으로 동물을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간주합니다.

330-3

테일러도 자신의 고유한 선을 지닌 존재, 즉 생명체를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생명체를 한낱 수단으로 '만' 이용하는 행위는 금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330-4

테일러는 자율성의 유무에 따라 생명체의 가치 위계를 정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애초에 자율성은 자연 내 존재 중에서도 오직 인간만 가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330-5

레오폴드와 칸트 모두 인간이 생명이 없는 것일지라도 함부로 파괴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레오폴드에 따르면 무생물도 존속할 권리가 있습니다. 칸트에 따르면 인간은 자연 내 존재와 관련한 의무를 갖습니다.

330-8

레건과 레오폴드 모두 동물 학대 금지가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 즉 인간의 인간에 대한 의무가 아니라 인간의 동물에 대한 의무에 근거한다고 봅니다. 동물 학대 금지가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에 근거한다고 보는 것은 인간 중심주의 사상가 칸트입니다.

330-9

레건은 일부 동물, 즉 삶의 주체가 되기 위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동물이 다른 존재의 이익과 독립해 개별적 복지를 추구한다고 봅니다. 해당 선지의 경우 ‘레건과 달리’라는 말이 잘못되었습니다.

21 6월 모의평가 15번 문항

레건 제시문 : 도덕적 존중의 대상에는 도덕적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삶의 주체인 동물도 포함된다. 그들 각각은 다른 존재의 이익과 독립해 개별적 복지를 추구한다.

330-10

레건은 삶의 주체가 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는 존재들은 자원으로 대우받아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레건의 입장에서 어떤 존재를 자원으로 대우한다는 것은 그 존재를 한낱 수단으로 ‘만’ 대우한다는 것입니다. 레건에 따르면 삶의 주체가 되는 존재들을 수단으로 이용할 수는 있지만, 한낱 수단으로 ‘만’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